

‘亢害承制論’의 發展過程과 意味에 대한 諸家說의 研究

I. 緒論	73
II. 研究內容	74
1. 王冰의 說	74
2. 劉河間의 說	76
3. 張子和의 說	79
4. 王安道의 說	80
5. 虞搏의 說	82
6. 張景岳의 說	83
7. 馬蒔의 說	84
8. 기타 諸家의 說	87
III. 結論	89
參考文獻	92

'亢害承制論'의 發展過程과 意味에 대한 諸家說의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 尹暢烈

1. 緒論

자연계에서 萬物이 생존함에 있어서 生化와 制約의 相反된 현상이 두루 존재함으로써 상호 간의 상대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어느 한 방향의 발전이 過亢하거나 不及하게 되면 곧 이런 평형은 파괴되어 어떠한 變亂이 발생하게 된다. 人體의 생명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 같은 종류의 이러한 상태가 나타난다. 《內經》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현상을 “亢害承制”라고 稱하였다.¹⁾

《素問六微旨大論》에 “亢則害承乃制 制生則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이라 하여, 氣가 過極하면 害物하지만, 相互 承制하는 작용에 의하여 전체적인 평형이 유지된다고 하였다.²⁾ 또한 “相火之下 水氣承之 水位之下 土氣承之 土位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라 하였으니 이는 五運의 承制關係를 말한 것³⁾이라고 하였다.

王冰이 亢害承制에 대해서 注解한 이후로 劉

河間에 이르러서 運氣에 대한 理論의 發明은 病理變化의 論證과 病候의 疑似眞假에 깊이 분석하였고⁴⁾, 氣化와 “亢則害 承乃制”論을 發展시켜서 六氣가 서로 轉化할 수 있다는 說을 제기함으로써 病理學說을 풍부하게 하였다.⁵⁾ 후에 王履는 생리, 병리변화 및 病候의 眞假分析, 診斷治療와 결합하여 해석하고⁶⁾, 張介賓은 일찍이 王履의 그 學說을 크게 칭송하여 계승하였다.⁷⁾

이처럼 ‘亢害承制論’은 本氣가 亢盛하면 下承之氣가 制함으로써 상대적 평형을 이루어 자연계의 정상상태를 유지하는 규칙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下承之氣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亢하면 어떤 氣가 해를 입는지, ‘亢害承制’가 어떤 규칙에 의하여 일어나는지, ‘外列盛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承制’의 규칙이 五行相克의 법칙을 따르는 五運의 相制인지 아니면 燥濕과 寒熱 및 風火의 대립인 六氣의 相制인지, 또한 ‘亢害承制論’과 ‘相乘’ ‘勝復’의 관계는 어떠한지는 자세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亢害承制論’의 奧義를 發明한 劉河間, 張子和, 王安道, 虞搏, 張景岳를 중심으로 하고,

1)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70.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202

3) 裘沛然 主編, 上揭書, p. 70.

4) 裘沛然 主編, 上揭書, p. 71.

5) 洪元植, 上揭書, p. 203

6) 洪元植, 上揭書, p. 203

7) 裘沛然 主編, 上揭書, p. 136.

《內經》의 歷代注釋과 기타 綜合醫書를 참고로 하여 '亢害承制論'을 發明 運用한 發展過程과 그 眞意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研究內容

1. 王冰의 說

王冰은 亢害承制의 理論을 자연현상과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즉 각종의 정상적인 자연현상은 모두 '承制'의 理致에 깃들여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로부터 추측하면 자연의 모든 현상은 모두 내부에서 스스로 制約하고 調節한 결과이며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먼저 六節所治之位에 대해서 살펴보면 <六微旨大論>에 "願聞地理之應六節氣位何如 岐伯曰顯明之右 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一步 金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君火治之"라 하였다. 이는 天의 六氣와 地의 物化現狀과의 상응관계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 顯明之位란 王冰은 "日出謂之顯明 則卯地氣分春也 自春分後六十日有奇"라 하였다. 春分이후에 낮이 점점 길어지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萬物의 生長이 점점 茂盛해지니 陽氣가 점점 길어지고 밝아지는 象이므로 春分이후에서 立夏에 이르기까지를 顯明이라 하였다.⁹⁾

君火之位는 "斗建卯正 至於巳正 君火位也"이라 하고 "所謂少陰 熱之分也 天度至此 暄淑大行 居熱之分 不行炎暑 君之德也"라 하였다. 즉 君火之位는 斗建이 卯正에서 巳正일 때이고 少陰 熱之分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君德과 같아서 暴炎은 있지 않고 따뜻한 기후가 있게 된다. 火에는 들이 있으니 君火로써 六氣의 시작을 삼았다.

君火之位에 少陽이 居하면 逆이 되니, "少陽居之爲僭逆 大熱早行 疫癘乃生 陽明居之爲溫涼不時"하고, 君火之位에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爲寒雨間熱 厥陰居之爲風濕 雨生羽蟲"하고, 君火之位에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爲天下疝疫 以其得位 君令宣行故也"하고, 君火之位에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之爲時雨"라고 하였다.

相火之位는 "自斗建巳正 至未之中 三之氣分 相火治之 所謂少陽也"라 하고, "相火則夏至日前後各三十日也 少陽之分 火之位也 天度至此 炎熱大行"라고 하였다. 相火之位는 斗建이 巳正에서 未中에 이르는 때이며 夏至日前後의 各三十日로 三之氣에 해당하며 少陽 火之位이다. 天度가 여기에 이르르면 炎熱이 大行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爲熱暴至 草萎河乾 炎亢 濕化晚布"하고, 陽明이 居하면 "陽明居之爲涼氣間發"하고,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爲寒氣間至 熱爭水雹"하고, 厥陰이 居하면 "厥陰居之爲風熱大行 雨生羽蟲"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爲大暑炎亢"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之爲雲雨雷電"한다.

"右"라는 표현은 "南面而命其位"한 것이다. 즉 관찰하는 사람이 南方으로 向하여 위치를 命한 것이다.

"退"라는 표현은 "退謂南面視之 在位之右也"라고 하였다. 즉 南面해서 볼 때 자리의 오른쪽에

8) 裘沛然 主編, 上揭書, p.32.

9) 方約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92-93.

있는 것을 退라고 하였다.

“一步”란 “一步 凡六十日又八十七刻半 餘氣同法”라고 하였다. 즉 六十日八十一刻半으로 土氣 金氣 등등도 이와 같다.

土氣는 “雨之分也 卽秋分前六十日而有奇 斗建未正 至酉之中 四之氣也”라 하고 “天度至此 雲雨大行 濕蒸乃作”라고 하였다. 이는 秋分前 六十日로서 斗建이 未正에서 酉中에 이르기까지이며 四之氣 雨之分에 해당하여, 天도가 이에 이르면 雲雨が 大行하여 濕蒸이 行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爲炎熱沸騰 雲雨雷電”하고, 陽明이 居하면 “陽明居之爲清雨霧露”하고,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爲寒雨害物”하고, 厥陰이 居하면 “厥陰居之爲暴風雨摧拉 雨生倮蟲”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爲寒熱 氣反用 山澤浮雲 暴雨溽蒸”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之爲大雨霖霖”한다.

金氣는 “燥之分也 卽秋分後六十日而有奇 自斗建酉正 至亥之中 五之氣也 天度至此 萬物皆燥”라고 하였다. 이는 秋分後 六十日로서 斗建이 酉正에서 亥中에 이르기까지이며 五之氣 燥之分에 해당하여, 天도가 여기에 이르면 萬물이 모두 燥하게 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爲溫清更正 萬物乃榮”하고, 陽明이 居하면 “陽明居之爲大涼燥疾”하고,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爲早寒 厥陰居之爲涼風大行 雨生介蟲”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爲秋濕熱病時行”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之爲時雨沈陰”한다.

水氣는 “寒之分也 卽冬至日前後各三十日 自斗建亥至丑之中 六之氣也 天度至此 寒氣大行”라고 하였다. 이는 冬至前後의 各三十日로서 斗建이 亥에서 丑中에 이르기까지이며 六之氣 寒之分에 해당하여 天도가 이에 이르면 寒氣가 大行

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爲冬溫 蟄蟲不藏 流水不冰”하고, 陽明이 居하면 “陽明居之爲燥寒勁切”하고,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爲大寒凝冽”하고, 厥陰이 居하면 “厥陰居之爲寒風飄揚 雨生鱗蟲”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爲蟄蟲出見 流水不冰”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之爲凝陰 寒雪 地氣濕也”

木氣는 “風之分也 卽春分前六十日而有奇也 自斗建丑正 至卯之中 初之氣也 天度至此 風氣乃行 天地神明 號令之始也 天之使也”라 하였다. 이는 春分前 六十日로서 斗建이 丑正에서 卯中에 이르기까지 初之氣 風之分에 해당하여, 天도가 이에 이르면 風氣가 이에 行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爲溫疫至”하고, 陽明이 居하면 “陽明居之爲清風霧露朦昧”하고,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爲寒風切冽 霜雪水冰”하고, 厥陰이 居하면 “厥陰居之爲大風發 榮雨生毛蟲”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爲熱風傷人 時氣流行”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之爲風雨凝陰 不散”한다.

다음으로 地理가 歲氣에 應하는 것을 살펴보면 “相火之下 水氣承之 水位之下 土氣承之 土位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라고 하였다.

“相火之下 水氣承之”에 대해서 “熱盛水承 條蔓柔弱 溱潤衍溢 水象可見”이라 하였고, “水位之下 土氣承之”에 대해서 “寒甚物堅 水水流涸 土象斯見 承下明矣”라고 하였고, “土位之下 風氣承之”에 대해서 “疾風之後 時雨乃零 是則濕爲風吹 化而爲雨”라고 하였고, “風位之下 金氣承之”에 대해서 “風動氣清 萬物皆燥 金承木下 其象昭然”이라고 하였고, “金位之下 火氣承之”에 대해서 “鍛金生熱則火流 金乘火之上 理無妄也”라고 하였

고, “君火之下 陰精承之”에 대해서 “君火之位 大熱不行 蓋爲陰精承其下也”라고 하였다.

이는 六氣의 相承과 制約은 萬物이 生化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만일 相承하지 못하면 制約함이 없어서 반드시 過亢이 되어 害가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亢害承制의 理論을 자연현상과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自然現象은 生化와 制約의 相反된 작용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平衡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것에 대해 “諸以所勝之氣乘於下者 皆折其標盛 此天地造化之大體爾”라고 하였다. 이는 所勝之氣가 아래에서 承하는 것은 그 標盛한 것을 꺾는 것이니 이는 天地造化의 大體일 뿐이라는 것이다.

‘亢害承制’에 대해서 “帝曰 何也 岐伯曰 亢則害 承酒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라고 결론하였다. 王冰은 이에 대해 “亢過極也 物惡其極”이라고 하였으니 物이 그 極함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亢害承制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王冰은 〈六元正紀大論〉의 “水發而雹雪 土發而飄驟 木發而毀折 金發而清明 火發而曠味”와 “氣有多少 發有微甚 微者當其氣 甚者兼其下 徵其下氣而見可知也”를 들고 그 注에 “六氣之下 各有承氣也 則如火位之下 水氣承之 …… 君位之下 陰精承之 各徵其下 則象可見矣 故發兼其下 則與本氣殊異”라고 하였고, “厥陰所至爲飄怒太涼 少陰所至爲大暄寒 太陰所至爲雷霆驟注烈風 少陽所至爲飄風播燎霜凝 陽明所至爲散落溫 太陽所至爲寒雪水雹白埃 氣變之常也”의 注에 각각 “飄怒 木也 太涼 下承之金氣也 …… 大暄 君火也 寒 下承之陰精也 …… 雷霆驟注 土也 烈風 下承之水氣也 …… 飄風 旋轉風也 霜凝 下承之水氣也 …… 散落 金也 溫 下承之火氣也 …… 霜雪水雹 水也

白埃 下承之土氣也 …… 變 謂變常平之氣 而爲甚用也 用甚不已 則下承之氣兼行 故皆非本氣也”라고 하였다. 이는 ‘亢害承制’로 인하여 平常之氣가 變하게 되어 그 下承之氣가 兼行하므로 本氣가 아니라고 하였다. “兼其下” “下承之氣兼行 故皆非本氣也” 등의 王冰의 注釋은, 劉河間이 더욱 발전시켜서 ‘亢害承制’함으로써 本氣와 陰陽屬性이 다른 ‘兼化’가 일어난다는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상에서 王冰의 “亢害承制”에 대한 闡發의 요점은 자연현상을 통해 “承制”가 生化에 유리하다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 또한 王冰의 이론은 자못 後世醫家들을 깨우쳤다. 예를 들어 劉完素는 이런 基礎에서 또한 새로운 闡發을 하였고, 그 후에 王履와 張景岳 등과 같은 醫家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논함으로써 ‘亢害承制理論’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인체의 生理, 病理, 治療 등과 연관되게 되었다.¹⁰⁾

2. 劉河間の 說

劉河間은 亢害承制에 대하여 정밀하게 연구하여 독특한 견해를 밝혔는데, 運氣의 相互承制가 사물 상호간의 平衡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라고 인식하고, 또한 동시에 臟腑 六氣가 亢盛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病理現象을 설명하였다.¹¹⁾ 특히 氣化와 “亢則害 承乃制”의 理論을 發展시켜서 六氣가 서로 轉化할 수 있다는 說을 제기함으로써 病理學說의 內容을 豊富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後世에 常用하는 濕證, 火證, 風證 등의 用語와 寒邪化火 熱極生風 등의 病變轉

10) 裘沛然 主編, 上揭書, p.32.

11) 裘沛然 主編, 上揭書, p.70.

化는 모두 이 時期에 發展 形成된 것이다.¹²⁾ 아울러 亢害承制로써 人體의 病理變化에서의 本質과 現象(標象)이 相反하는 關係를 해석하였다.

《素問玄機原病式·自序》에서 “遂以比物立象 詳論天地運氣造化自然之理……雖未備論諸疾 以此推之 則識病六氣陰陽虛實 幾于備矣¹³⁾”라고 하고, 《素問玄機原病式》에서 “秋深燥甚 則草木痿落而不收 病之象也¹⁴⁾”라 하였다. 이처럼 河間은 “比物立象”의 方法을 사용하여 天의 六氣와 人體의 六氣의 變化가 일치한다는 理論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天氣의 承制로부터 人體 臟腑의 病理變化를 연관하고, 人體내의 六氣의 承制 關係로 인하여 臟腑間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劉河間의 ‘亢害承制論’의 發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河間은 亢害承制로 인하여 兼化가 나타남을 제시하여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夫五行之理 甚而無以制之 則造化息矣 如春木旺而多風 風大則反涼 是反兼金化制其木也 大涼之下 天氣反溫 乃火化承于金也 夏火熱極而體反出液 是反兼水化制其火也 因而濕陰雲雨 乃土化承于水也 雨濕過極而兼烈風 乃木化制其土也 飄驟之下 秋氣反涼 乃金化承于木也 涼極而萬物反燥 乃火化制其金也 因而爲冬寒 乃水化承于火也 寒極則水凝如地 乃土化制其水也 凝凍極而起東風 乃木化承土而周歲也 凡不明病之標本者 由未知此變化之道也¹⁵⁾”라 하였다. 이렇듯이 承制에 의한 兼化로 氣候가 太過나 不及에 이르지 않고 萬物도 生化不息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王冰의 亢害承

制論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亢害承제한 결과로서 兼化作用이 나타나서 生化와 制約의 상대적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河間은 亢害承制論을 자연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이를 人體의 氣化와 연관하여 설명하여 실제적인 면을 추구하였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 “亢則害 承乃制也 故病濕過極則爲瘧 反兼風化制之也 風病過極則反燥 筋脈勁急 反兼金化制之也 病燥過極則煩渴 反兼火化制之也 病熱過極而反出五液 或爲戰慄惡寒 反兼水化制之也¹⁶⁾”라 하였다. 人體 내부에서 만약 承制의 作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病理變化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兼化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사용한 곳도 있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夫六氣變亂而爲病者 乃相兼而同爲病 風熱燥同 多兼化也 寒濕性同 多兼化也 性異而兼化之 有之亦已鮮矣¹⁷⁾”라고 하였다. ‘風熱燥’는 性이 같아서 兼化하는 것이 많으며 ‘寒濕’도 性이 같아서 兼化하는 것이 많고, 다만 性이 다르면서 兼化하는 것은 있는 하나 드물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兼化는 承制에 의한 것이 아니라, 兼病의 의미이므로 마땅히 구별해야 한다.

또한 자연계에서 六氣의 偏盛 過極으로 인하여 그들간의 정상적인 相互承制 關係가 파괴되면 종종 本質과 現象(標象)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출현한다. 人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人體의 六氣가 偏盛 過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承制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勝己之化”의 假象(標象)이 나타나게 되니, 河間은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夫五行之理 微則當其本化 甚則兼

12) 洪元植, 上揭書, p. 202.

13) 葉川等 主編,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 8

14) 葉川等, 上揭書, p. 23

15) 葉川等, 上揭書, p. 25

16) 葉川等, 上揭書, p. 25

17) 葉川等, 上揭書, p. 26

有鬼賊 故經曰亢則害 承乃制也”¹⁸⁾라고 하였다. 즉 亢害는 그 本質이며 兼化는 그 標象(假象)인 것이다. 또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自序》에서 “以此觀之 是未知陰陽變化之道 況木極似金 金極似火 火極似水 水極似土 土極似木 故經曰 亢則害承乃制 謂已亢極 反似勝己之化 流俗未知 故認似作是 以陽爲陰 失其本意 經所謂 誅罰無過 命曰大惑”¹⁹⁾이라 하였다. 이는 病理變化에 있어서 亢害인 本質과 兼化인 標象이 陰陽屬性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本質과 標象의 相反의인 관계로 인하여, 病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正반대로 診斷하여 治療하다가 실패를 보게 된다.

따라서 河間은 자연계의 六氣가 偏盛 過度할 때는 곧 勝己之化의 現象(標象)이 나타나는 것처럼 人體에서도 兼化의 假象(標象)이 나타나므로 標象을 本質로 誤認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諸瘧強直 …… 陰經曰柔瘧 陽經曰剛瘧 亢則害 承乃制 故濕過極 則反兼風化制之 然兼化者 虛象而實非風也”라고 하였다. 이는 諸瘧이 風病의 本象이지만 濕氣가 過極할 때에도 諸瘧強直의 假風의 現象(標象)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濕極하여 도리어 風化를 兼하여 制之하는 現象이다. 또한 “戰慄 …… 此由心火熱甚 亢極而戰 反兼水化制之 故寒慄也 然 寒慄者 由火甚似水 實非兼有寒氣也”라 하였다. 이는 戰慄은 寒病의 本象이지만 熱氣가 過甚할 때에도 寒戰 振慄 等の 假寒의 現象(標象)이 나타날 수 있으니, 火極하여 도리어 水化를 兼하여 制之하는 火極似水의 現象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診斷에 있어서 疾病의 假象의 變化

(反似勝己之化)인 標象과 本質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治療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 過亢한 氣를 瀉하여 그 本質을 치료하여야 하지 假象(標象)에 미혹되어 兼化를 誤治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그는 “不明標本 但隨兼化之虛妄爲治 反助其病而害于生命多矣”²⁰⁾라하고, “但當瀉其過甚之氣 以爲病本 不可反誤治其兼化也”²¹⁾라 하였다.

따라서 河間의 運氣에 대한 亢害承制論의 發明은 病理變化의 論證과 病候疑似의 眞假에 대해 깊이 분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후세에게 診斷 및 治療에 많은 도움이 있다.²²⁾

끝으로 河間의 亢害承制論에 대해서 諸家の 評을 살펴보면, 李仲梓는 《願生微論》에서 “完素發明亢制之理 洞如觀火 然偏主于熱 豈能盡六氣之變乎”²³⁾라고 하여 河間의 亢害承制說은 火에 치우쳐서 六氣의 變化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評하였다.

또한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²⁴⁾에서는 姜春華의 말을 빌어서 “河間이 제창한 ‘亢則害 承乃制’는 治療上에서 예방조치를 위한 것이고, 用藥上에서 어떻게 해야 過亢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더욱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가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 《內經》에서 말한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內經》에서는 五行이 更勝하여 서로 平함을 말하였으니, 正常狀況에서는 가령 一氣가 偏盛하여 害가 되면 承하는 것이 일어나 制하니, 承制하는 관계가 자연적인 조절작용을 일으킨

20) 葉川 等, 上揭書, p.113

21) 葉川 等, 上揭書, p.25

22) 裘沛然 主編, 上揭書, p.70.

23) 李聰甫 等,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7

24) 李聰甫 等, 上揭書, p.7

18) 葉川 等, 上揭書, p.14

19) 葉川 等, 上揭書, p.105

다. …… 完素가 말한 亢害承制는 실제로는 六氣의 病變이 過亢하여 어느 정도에 이를 때에 假象이 나타나지만 그 主要原因은 亢害에 있고, 亢害하여 이미 承制에 이른 것에 있지 않다. 가령 亢害하여 이미 承制에 이르면 病情이 마땅히 好轉되어야 하며, 혹은 承制가 지나치면 病變의 性質이 이미 相反된 一面으로 轉化되니 이는 일종의 現象일 뿐만이 아니다.”라고 評하였다.

그러나 姜春華의 이런 評은 河間의 說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病機論》에 “風病過極而反中外燥澁 是反兼金化也 故非爲金制其木 是甚則如此”라 하였으니, 이는 風病이 過極하여 燥澁의 假象이 나타나는 것은 金化를 兼한 것이므로 金이 그 木을 制한 것이 아니라, 風病이 甚하면 金化의 假象이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 즉 姜春華의 말대로 亢害하여 이미 承制에 이르면 病情이 마땅히 好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承制에 이르면 病이 이미 甚한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承制가 지나치면 相反된 一面으로 轉化하지만 그것이 病의 本質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假象(標象)에 불과한 것이다.

3. 張子和의 說

張子和는 劉河間을 私淑하여 六氣致病의 이론을 계승하여 疾病을 風·寒·暑·濕·燥·火의 六門으로 나누고, 治療방법은 汗·吐·下 三法으로 攻邪를 위주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主張은 그 당시 및 그 후에 약간의 반대가 있었으므로, 그의 著作中에는 論爭과 辨駁性의 문장이 비교적 많다.²⁵⁾ 이처럼 張子和는 劉河間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나, 《儒門事親·心

鏡別集》에 나타난 張子和의 ‘亢害承制論’ 역시 劉河間의 說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

張子和는 亢害承制의 ‘承’字에 대해서 ‘承襲’의 의미로 해석하여 所不勝者가 承하는 것이 아니라, 所生者가 承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亢害承制” 原文 뒤의 ‘害’字도 所承하는 所生者가 害를 입으며, 이로 인하여 所承者의 所勝者가 旺하게 되어 ‘制’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儒門事親·心鏡別集》에 “假令水爲母 木爲子 當春旺之時 冬令猶在 卽水亢也 水既亢極 則木令不至矣 木者 繼冬而承水也 水既亢 則害其所承矣 所以木無權 則無所制土 土既旺 則水乃受制也 夫人必自侮 然後人侮之旨哉 木長春之令也 水受土制 熱克其寒也 變而爲濕”²⁶⁾이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가령 水가 母가 되고 木이 子가 되니 春이 旺盛해야 할 때에 冬令이 오히려 물러나지 않고 남게 되면 이것이 水가 亢한 것이니, 水가 亢하면 木令이 이르지 못하게 된다. 木은 겨울을 이어서 水를 承하는 것이니, 水가 이미 亢하면 그 承하는 木에 害를 입히므로 木이 권세가 없게 된다. 이리하여 土를 制하지 못하여 土가 이미 旺盛하게 되니 水가 이에 그 制함을 받는다. 대개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侮한 然後에 남이 侮하는 뜻과 같다. 木은 長春의 令이니 水가 土의 制압을 받아서 熱이 그 寒을 이겨서 변하여 濕이 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張子和의 ‘亢害承制論’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心鏡別集》 자체를 張子和의 저서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王安道는 “斯言也 推之愈詳 而違經愈遠矣 或曰 心要者 他人成之 蓋得于所聞之訛耳”²⁷⁾

25) 洪元植, 上揭書, p. 219.

26) 張從正, 子和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 391

27) 王安道, 東垣十種醫書醫經溯洄集, 서울, 大星文化

라고 하였다. 한편 王安道는 <治法心要>에 張子和의 '亢害承制論'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心鏡別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문장도 약간 다르다. 이는 <儒門事親>이 원래 홀어진 十種의 著作을 後人이 編成하여 이루어진²⁸⁾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인 듯하다.

4. 王安道の 說

劉河間의 亢害承制論은 王安道에 의해 더욱 정밀하게 發明되었는데, 病理變化와 病候의 眞假分析 및 診斷과 治療에 이르기까지 後世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王安道는 亢害承制論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주로 설명하였다.²⁹⁾ 그 중 하나는 자연계의 萬物이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를 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고정 불변하는 사물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易也者 造化之不可常也 惟其不可常 故神化莫能以測 莫測故不息也 可常則息矣”³⁰⁾라고 하였다. 이는 어떤 사물이라도 운동 변화가 없으면 生命이 곧 끝난다고 인식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天地 萬物이 잠시라도 변화 운동하지 않는 때가 없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필연적으로 상호 협조와 상호 평형이라는 하나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王安道の 論述에 “嘗觀夫陰陽五行之在天地間也 高者抑之 下者舉之 强者折之 弱者濟之 蓋莫或使然而自不能不然”³¹⁾이라고 하였다. 만약 이 법칙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萬物은 生氣가 문

란해지고 인체에 있어서는 疾病을 발생케 하고 심지어는 生命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는 또 “不如是則高者愈高 下者愈下 强者愈強 弱者愈弱 而乖亂之政 日以極矣 天地其能位乎”³²⁾라 하였다. 그는 이처럼 天地 萬物과 인체 生理와 生命의 연속은, 不斷한 운동과 隨時 變易이 필수적인 동시에 그들 사이에 모두 평형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으니, 이러한 운동 변화와 협조 평형은 결국에는 變化 莫測하지 않고 헤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에서 그는 亢害承制가 사물에 대한 협조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그것이 사물의 생성과 敗亂의 관건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亢則害 承乃制”가 “造化之樞紐”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亢害承制하는 방식을 '不亢而防之'와 '既亢而克勝之'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亢則害 承乃制二句 言抑其過也 制生則化止 生化大病四句 言有制之常 與無制之變也 承 猶隨也 然不言隨而曰承者 以下言之 則有上奉之象 故曰承 雖謂之承 而有防之之義存焉 亢者 過極也 害者 害物也 制者 克勝之也 然所承也 其不亢 則隨之而已 故雖承而不見 既亢 則克勝以平之 承斯見矣 然而迎之不知其所來 迹之不知其所止 固若有不可必者 然可必者 常存乎杳冥恍惚之中 而莫之或欺也”³³⁾라 하였다.

亢은 氣가 심한 것이고, 承은 '以下奉上'하여 따른다(隨之)는 뜻이나 또한 반대로 그 亢함을 방지(防之)한다는 뜻도 있으며, '害'는 '害物'의 뜻이니 萬物을 害한다는 것이며, '制'는 亢甚한 本氣를 克勝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所承者는 곧 本氣의 所不勝者인 것이다.

社, 1983, pp. 607-610.

28) 洪元植, 上揭書, p. 219.

29) 裘沛然 主編, 上揭書, p. 136.

30) 王安道, 上揭書, pp. 607-610.

31) 王安道, 上揭書, pp. 607-610.

32) 王安道, 上揭書, pp. 607-610.

33) 王安道, 上揭書, pp. 607-610.

‘承’이 ‘방지한다’와 ‘따른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不亢而防之’와 ‘既亢而克勝之’의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먼저 ‘不亢而防之’의 경우를 예로 들면 不平하되 不亢한 상태에서는 木은 風이 되고 火는 熱이 되며, 만약 不足하면 風도 없고 熱도 없게 되어 木火의 作用을 잃게 된다. 不平하되 不亢하면 木을 制하는 金과 火를 制하는 水가 다만 따라오므로 承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에 ‘既亢而克勝之’의 경우를 예로 들면 木이 亢함에 이르면 金氣가 곧 일어나 木을 制하고, 火가 亢함에 이르면 水氣가 곧 일어나 火를 制하여 상대적 평형을 유지시키니 이런 경우에 承함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정상적인 生化 현상인 것이다. 반대로 혹 木火의 氣가 不足하거나 혹 지나치게 亢하여 金水의 氣가 制할 수 없으면 生化와 반대인 敗亂의 현상이 된다.

王安道는 亢害承制의 법칙이 어디에서든 어느 때이든 그러한 보편성으로 인하여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체에 있어서 ‘不亢而防之’의 경우는, 비록 正常時에 “五臟更相平”하나 만약 一臟이 不平하면 所不勝하는 臟이 서로 平하도록 하니, “以心火而言 其不亢 則腎水雖心火之所畏 亦不過防之而已”³⁴⁾이라 하였다. ‘既亢而克勝之’의 경우는, 만약 一臟이 亢하면 곧 所勝하는 臟이 承하여 克하게 되니, “一或有亢 即起而克勝之矣 餘臟皆然平”³⁵⁾라고 하였다.

또한 王安道는 ‘亢害承制’의 原文 뒤에 “制生則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에 대해서 ‘制則生化’로 고치고,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의 상황으로 나누어 각각 “制則生化 外列盛衰”와 “害

則敗亂 生化大病”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制生則化’는 ‘制則生化’를 傳寫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文理가 접속지 않으며 뒤의 “生化大病”과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고쳐야 마땅하다고 前提하고, 따라서 ‘制則生化’란 制하는 바가 있으면 六氣가 亢에 이르지 않아서 平이 되고 平이 되면 萬物이 生生하여 變化가 無窮하게 되며 化는 生의 成이므로 生이 化보다 먼저 하고 해석하였다.

‘外列盛衰’란 制하는 바가 있는 상황에서 六氣가 分布 主治하여 번갈아 盛衰가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外列’이라 하였다.

‘害則敗亂’이란 이미 亢하여 害가 되어 制할 수 없으면 ‘敗壞乖亂’이 行하여지며 ‘敗壞乖亂’하면 그 變이 極하여지니 그 害가 심하고 萬物이 病들지 않는 것이 없다. ‘生化’란 所生 所化를 지적하여 말한 것이니 萬物을 말한다. 變이 極하고 害가 甚하므로 ‘大病’이라고 한다.

또한 王安道는 이를 人體에 적용하여 논하였는데 ‘制則生化’는 元氣가 周流하여 一身을 滋養하는 것과 같으며, ‘生化大病’은 邪氣가 橫行하여 正氣가 耗散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한편 “制則生化”의 ‘生化’는 造化의 用으로 말한 것이고, “生化大病”의 ‘生化’는 萬物을 말한다고 하여, 生을 “自無而有”, 化를 “自有而無”로 해석하거나 앞의 ‘生化’와 뒤의 ‘生化’를 동일시하는 것은 모두 그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亢害承制를 ‘亢而自制’와 ‘亢而不能自制’의 상황으로 나누어 자연계와 인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인체의 氣는 ‘亢而自制’해야 하는데, 만약 ‘亢而不能自制’하게 되면 病이 發한다. 따라서 湯液 針石 導引의 方法으로 도와서 그 亢함을 制하고 그 害를 제거한다. 그러나 天地의 氣

34) 王安道, 上揭書, pp. 607-610.

35) 王安道, 上揭書, pp. 607-610.

는 인체와는 달라서 ‘亢而自制’하면 짝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亢而不制’하게 되면 그 누가 도울 수가 없다. 하지만 天地 造化의 道는 變化가 極함에 이르면 마침내 스스로 돌아와서 그 평상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王安道는 이와 같이 “亢則害 承乃制”를 인체의 生理 病理 및 治療와 결합하여 해석하였으니 그 논술은 자못 精微하고 深奧하다. 그는 “造化之常 不能以無亢 亦不能以無制”의 관점을 제시하고, 五臟으로 인체의 질병을 설명하는 辨證法의 요소를 갖추어서 張介賓 같은 이는 일찍이 그 學說을 크게 칭송하였다.³⁶⁾

5. 虞搏의 說

虞搏은 王安道の ‘亢害承制論’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元氣說’을 결합하여 ‘子來救母’의 의미를 發明함으로써 그의 理論을 보충하였다.

우선 ‘顯明’에 대해서 “夫所謂顯明者 指方位而言 日出于卯之地也”라고 하였으니, 六氣중에서 방위로 日出의 卯方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顯明之右”의 ‘右’와 ‘退行’에 대해서 “少陰君火始于此而右遷 故曰顯明之右 蓋天地左旋 六氣右旋 故曰退行”라고 하였다. 이는 少陰君火가 顯明에서 시작하여 右遷하므로 ‘顯明之右’라 하였고, 天地는 左旋하고 六氣는 右旋하므로 ‘退行’이라 한 것이다.

‘承’字의 해석에 있어서 王安道の 說을 계승하였는데, 六位의 아래에 각각 所不勝이 承하고 있으니 “王氏曰承猶隨也 而又有防之之義 以下奉上故曰承 其五行之道 不亢則隨之而已 一有所亢

則起而克勝之也”라고 하였다.

‘制’와 ‘害’에 대해서 “制者 制其氣之太過也 害者 害勝者之元氣也”라고 하였으니, 害를 받는 것은 所勝者임을 밝히고, 亢害承制論을 元氣와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그가 말한 元氣란, 합하여 말하면 ‘一元’이고 나누어 말하면 ‘六元’인데, 一元이란 “一元者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復生水 循環無端 生生不息”이라 하였으니 一氣가 生生하여 循環하는 것이고, ‘六元’이란 “六元者 水爲木之化元 木爲火之化元 火爲土之化元 土爲金之化元 金爲水之化元 亦運化而無窮也”이라 하였으니 母가 子의 化元이 되어 運化하여 무궁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一元·六元의 元氣說에 바탕을 두어 王安道の 說을 부연하여 “假如火不亢 則所承之水 隨之而已 一有亢極 則其水起以平之 蓋恐害吾金元之氣 子來救母之意也 六氣皆然 此五行勝復之理 不期然而然者矣”이라 하였다. 火가 不亢하면 承하는 水가 따라올 뿐이고 만약 亢極하면 그 水가 일어나 火를 平하게 하니, 金의 元氣를 害할까 두려워해서이니, 이는 ‘子來救母’하는 뜻이다. 이러한 설명은 張子和의 ‘母子說’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며 王安道の 說을 ‘子來救母’로 보충 해석한 것이다.

虞搏은 ‘亢害承制’에 대해서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制生則化’와 ‘害則敗亂’과 연결하여 해석하였으니, 王安道の 學說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制生則化’에 대해서 王安道の 說을 따라서 ‘制則生化’로 고쳐서 “制則生化者 言有制之常 如亢則制 而生化不息 何害之有”라고 하여 承制가 이루어지는 정상이라 설명하고, ‘外列盛衰’에 대해서는 “外列盛衰者 言所承者力衰 而所亢者極盛 制之不盡耳 在天地則爲六淫 在人身則爲六疾”라

36) 裘沛然 主編, 上揭書, p. 136.

하였다. 즉 ‘外列盛衰’란 所承者가 힘이 衰하여 所亢者가 極盛하게 되어 承制가 있되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니, 天地에 있어서는 六淫이 되고 人身에 있어서는 六疾이 된다고 하였다. 王安道가 ‘外列盛衰’에 대해서 有制之常에서 六氣가 分布 主治하는 것이 번갈아 盛衰함이 드러나는 것이라 한 것을, 虞搏이 보충하여 所承者는 衰하고 所亢者는 極盛하여 承制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발명한 것이다.

‘害則敗亂’에 대해서 “害則敗亂者 言無制之變也 所承者衰甚而無氣 故所亢者其勢縱橫而不可遏也 在天地則大壞絕滅 在人身則病眞而死矣”라 하여 承制가 없는 變에 대하여 所承者는 더욱 衰함이 심하여 氣가 없게 되고 所亢者는 세력이 더욱 강하여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니 ‘生化大病’하여 天地가 大壞하여 滅絶하고 人身은 眞氣까지 病들어 死한다고 하였다. 王安道는 ‘害則敗亂’에 대해서 無制之變에서 敗壞乖亂이 行하여진다고 한 것을, 虞搏이 보충하여 所承者는 더욱 衰함이 甚하고 所亢者는 세력이 縱橫하여 ‘生化大病’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虞搏은 王安道의 亢害承制論에서 未盡한 뜻을 발명하였다. 가령 ‘亢害承制’에서 害를 입는 것은 所勝者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亢害承制’를 ‘元氣說’과 결합하여 ‘子來救母’로 설명하였고, ‘外列盛衰’ “害則敗亂” 등을 ‘所承者’ ‘所亢者’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6. 張景岳의 說

張景岳은 ‘亢害承制論’에 대해서 王安道와 虞搏의 說을 그대로 繼承하였는데 《周易》을 인

용하여 그 근거를 설명하였다.

陰陽五行의 道는 亢極하면 파괴되어 強弱이 서로 해치므로 偏盛이 있으면 반드시 偏衰가 있게 된다. 만약 強이 制하는 바가 없으면 強은 더욱 強하고 弱은 더욱 弱하여 乖亂이 날로 심해진다. 따라서 張景岳은 《類經》에서 “所以亢而過甚 則害乎所勝 而承其下者 必從而制之 此天地自然之妙 眞有莫之使然 而不得不然者 天下無常勝之理 亦無常屈之理”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所勝을 害한다는 것은 虞搏의 說을 계승한 것이다.

이처럼 強은 더욱 強하고 弱은 더욱 弱하면 乖亂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를 其下者인 所不勝이 承하여 制하게 되니, 張景岳은 “易之乾象曰 亢之爲言也 知進而不知退 知存而不知亡 知得而不知喪 復之象曰 復其見天地之心乎 卽此亢承之義”라고 하였다. 즉 ‘亢’은 周易의 乾卦上九에 해당하고 ‘承’은 復卦의 初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張景岳도 ‘亢害承制’를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制生則化’와 ‘害則敗亂’과 연결하여 해석하여, 王安道 虞搏을 따랐으니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盛極하지 않고 制함이 있으면 亢害함이 이르지 않고, 亢害함이 없으면 生化가 자연히 나와서, 盛할 것은 盛하고 衰할 것은 衰하여 그 순서가 맞으니 이것이 이른바 ‘外列盛衰’이다. ‘外列’이란 발육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亢하여 制함이 없으면 害가 되니 害가 되면 敗亂하고 失常하여 正氣를 生化하지 못하여 邪氣가 되므로 大病이 되니 이것이 이른바 ‘害則敗亂 生化大病’이다.

張景岳은 특히 王安道의 說을 부연하여 人體에 적용하였는데, 《類經》에서 “由此觀之 則天地萬物 固無往而非五行 而亢害承制 又安往而不

然哉 故求之於人 則五藏更相平也 五志更相勝也 五氣更相移也 五病更相變也”라고 하였다. 이는 天地 萬物이 五行이 아닌 것이 없고 亢害承制가 作用하지 않는 때가 없으므로, 王安道의 說처럼 五臟에만 국한하지 않고, 五志 五氣 五病 역시 亢害承制에 의하여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火極則寒生 寒極則濕生 濕極則風生 風極則燥生 燥極則熱生 皆其化也”하니, 이처럼 承制가 天地間에서 ‘氣化’의 自然에서 비롯되고 사람에게도 있는 것은 그 運用의 得失을 挽回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亢害承制의 幾微와 道를 알면 파악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으니 험가 없게 된다. 만약 亢害承制의 道에 밝지 못하여 眞假를 分別하지 못하면 敗亂이 곧 닥치게 되니 오직 知者만이 능히 慎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張景岳은 ‘亢害承制’를 자연계의 現象으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人事로 파악하였다.

7. 馬蒔의 說

馬蒔는 《素問注證發微》에서 “夫六氣之下 各有所制之氣承之者 蓋五行之氣 一極則一生 而循環相承 無一息間斷也”³⁷⁾라고 하였으니, 六氣가 下承하는 것을 生生하여 循環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하나가 極하여 사라지면 하나가 生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相火를 예로 들면 “相火之下 水氣承之者 夏相火極水生承之 從微漸化 至冬著也”³⁸⁾라 하였으니, 相火之下에 水氣가 承하는 것은 여름에 相火가 極하면 水가

生하여 계승하나니 水가 微弱하다가 점점 化하여 겨울에 이르면 盛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胞胎說’과 그 뜻이 같으니 또한 “其義與 陰陽家 水胎於午 金胎於卯等說 大同小異 而皆循環相承以爲胎也”³⁹⁾라고 하였다.

또한 “亢則害 承乃制”에 대해서 “亢 過極也 …… 言六位之氣 過極則必害作 承氣乃生於下 制之使不過也”⁴⁰⁾라고 하여 해석이 다른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六氣勝復’과 歲氣의 平 및 太過·不及과 結合함으로써 諸家들은 亢害承制로 모두 太過일 경우만을 해석한데 反하여, 馬蒔는 不及한 경우까지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下承之氣’에 대해서 《內經》의 六氣承制의 “相火之下 水氣承之 水位之下 土氣承之 土位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를 인용하였으며, ‘害’를 입는 氣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다만 “害作則敗壞擾亂 而生化大病也”⁴¹⁾라고만 하였고 또한 ‘兼化’ ‘勝復’과 연관하여 ‘災害嘗傷’으로 파악한 듯하다.

또한 “制生則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에 대해서 “故制則從微化著 承者自外列盛 極者自外列衰 而生化循環 害作則敗壞擾亂 而生化大病也”⁴²⁾라고 하였으니, 이는 “制則生化”를 胞胎說에 따라서 ‘生’과 ‘化’의 순환 개념으로 해석하고, ‘承者’와 ‘極者’로 나누어 “外列盛衰”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앞의 諸家說과 매우 다르다.

馬蒔는 《素問》의 그 다음 原文에서 “盛衰”에 대해서 “非其位則邪 當其位則正 邪則變甚 正

37) 馬蒔 張隱庵, 張馬合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p. 484
38)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4

39)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4
40)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4
41)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4
42)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4

則微"라고 설명한 것과 "外列盛衰"를 결합하여 六氣의 '勝復'과 연관함으로써 독특한 의견을 보였다.

馬蒔는 '亢害承制'에 대해서 歲氣가 平年일 때와 太過 不及年일 때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우선 平年일 때에는 "蓋制亢下承生化之盛衰 惟歲氣和平 則其所化 循序漸進 從微至著 而皆當六位之正"⁴³⁾하게 되니, 生化가 漸進의 이어서 六位가 정상상을 얻게 된다. 가령 "復行一步 君火治之 陰精承之一節"은 "乃下承生化之盛衰 當其位則正者也"⁴⁴⁾이니 즉 '當其位'의 正化로서, "蓋其盛衰循序不亂 盛者當治之正位 衰者當承之正位 而各當本位之正"⁴⁵⁾이라 하니, 그 盛衰의 순서가 錯亂하지 않아서 盛者는 '當治'의 正位이고 衰者는 '當承'의 正位가 되어 각각 本位의 正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후가 정상적이어서 "溫當春 熱當夏 涼當秋 寒當冬 而氣候和平"⁴⁶⁾한다. 그러나 太過 혹은 不及年일 때에는 "其歲氣有太過不及 則其所化無序 或躡等凌節 或乘危往勝 故變或兼化 而爲半非其位之邪 變或復勝而爲全非其位之邪也"⁴⁷⁾라 하였으니, 生化에 순서가 없어 節氣를 뛰어넘어서 變이 生하는데 혹은 '兼化'하여 절반만 '非其位'인 邪가 되거나 혹은 '勝復'하여 완전히 '非其位'인 邪가 된다고 하였다. 가령 "木發毀折者 暴亢極之木飄 半兼暴承下之金殺 同化而盛衰 衰半非其位 爲兼化之邪也 厥陰所至爲飄怒大涼者 暴亢極之木飄怒 爲暴承下之金涼報復 而盛衰全非其位 爲勝復之邪也"⁴⁸⁾라고 하였다. 즉 <六元正紀大論>에서 말한 "木發毀折은 承下之金氣와 절반만 兼化한 것이고, "厥陰所至爲飄怒大涼

43)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4

44)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5

45)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5

46)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5

47)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5

48)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5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馬蒔가 제시한 不及한 경우의 兼化를 치료하는 방법은 “凡此皆氣虛所變之兼化 其治法當補本氣之虛 非如氣盛之法當瀉”⁵³⁾이다. 그러므로 劉河間이 兼化를 치료할 때 다만 亢甚한 本氣를 瀉하라고 하였으나, 그 兼化가 本氣의 부족으로 인하여 承者가 다시 勝復함으로써 그러한 경우는 瀉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補해야 하니 “今河間則言治兼化 但當瀉其亢甚之本氣者可乎 其所兼之化 皆本氣不足 所承者 得以勝之而然不治則人氣愈衰 承氣愈勝”⁵⁴⁾라고 하였다. 따라서 ‘兼化’가 虛象이므로 도리어 ‘兼化’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今列言兼化爲相似之虛象 不可反治之者可乎 此則河間誤釋太過不及所變之兼化皆爲太過也 曰王氏林氏河間失經旨 意已聞命矣”⁵⁵⁾라고 하였으니, 劉河間の ‘兼化說’에 대해서 보충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馬蒔는 ‘亢害承制’를 ‘正化之常’과 ‘兼化·勝復之變’으로 나누고 각각 和者와 乖者로 구분하였으니 “六位下承之氣 其所以爲正化之常者 爲兼化勝復之變者 爲和者 爲乖者之詳”⁵⁶⁾라고 하였다. 한편 만약 ‘相承’하는 體로 말한다면 常과 變, 和와 乖의 차이가 없지만 流行하는 用으로 말하면 “極於平氣之紀 而當其位承之者 爲正化之常而爲和 極於太過不及之者 而非其位承之者 爲兼化勝復之變而爲乖也”⁵⁷⁾하게 된다. 따라서 平氣年에는 ‘當其位者’가 承하여 正化之常이 되어 和하지만, 太過·不及年에는 ‘非其位者’가 承하여 兼化 勝復의 變이 되어 乖하게

된다. 그 正化之常인 경우는 순서가 점진적이어서 정상적인 四時의 유행이 되고, 그 ‘兼化’ 勝復의 變인 경우는 太過하거나 不及하건 간에 承者가 그 極함에 따라서 그 아래에서 制하여 四時의 기운이 躡等하게 되어 그 本氣를 變化하여 旦夕으로 暴化하게 되니 “其常者 則循序漸進 以爲四時之周流 其變者 則或肆威太過 而甚極於非位 或勢位不及 而天極於非位 故所承者 皆隨其極制於下 而躡等凌節 變其本氣 以爲旦夕之暴化”⁵⁸⁾라고 하였다. 따라서 半變하는 경우는 本氣가 半衰하고 下承者가 半盛하여 ‘非其位’의 ‘兼化’가 되고, 全變하는 경우는 本氣가 全衰하고 下承之氣가 全盛하여 ‘非其位’의 ‘勝復’이 되니 和而變者는 德化政令이 되고 乖而變者는 災害害傷이 된다. 따라서 “是故半變者 本氣半衰 下承半盛 而爲半非位之兼化 全變者 本氣全衰 下承全盛 而爲全非位之勝復 和而變者爲德化政令 乖而變者爲災害害傷也”⁵⁹⁾라고 하였다.

가령 〈五常政大論〉의 言及中에서 木의 경우를 예를 들면 “發生之紀 其變振拉摧拔”의 類는 太過의 ‘兼化’이고 “不務其德 則收氣復”의 類는 太過의 ‘勝復’이며, “委和之紀 其動綏長拘緩”의 類는 不及의 ‘兼化’이고 “蕭飈肅殺 則炎赫沸騰”의 類는 德化政令의 ‘勝復’이며, 〈六元正紀大論〉의 “水發而雹雪 木發而毀折”의 類는 災害害傷의 ‘兼化’이고 “厥陰所至爲飄怒大涼 少陰所至爲大暄寒”의 類는 災害害傷의 ‘勝復’이라고 하였다.⁶⁰⁾

따라서 馬蒔는 王冰과 劉河間の 잘못을 지적하여 “其所極所承者 自常變和乖之不齊 則其應見者 有正化兼化勝復 及微甚災祥之各異 王氏林氏不分變化 釋變化爲變氣 河間不分虛實 釋兼化爲盛 皆不思之過也”⁶¹⁾라고 하였으니, 王冰은 變化

53)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5

54)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6

55)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6

56)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6

57)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6

58)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6

59)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6

60)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6

를 半變하는 兼化와 全變하는 勝復으로 구분하지 않고 變化를 모두 變氣라고 잘못 해석하였고, 河間은 虛實을 나누지 않고 兼化를 치료할 때에 盛한 경우만 생각하여 亢甚한 本氣를 瀉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모두 자세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8. 기타 諸家の 說

張隱庵은 《素問集注》에서 “蓋五行之中 有生有化 有制有剋 如無承制 而亢極則爲害 有制剋則生化矣”⁶²⁾라고 하여 역시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有制之常의 경우는 “制則生化”하는 것으로, 가령 “如金位之下 乃君相二火 太陰濕土 母子之氣承之 母氣剋之 則子氣生化其金矣”⁶³⁾라고 하였으니, 下承之氣가 돌로서 서로 相生하니 母氣가 制하면 子氣가 그 本位之氣를 生化하는 것이다. 결국 母氣는 承制之氣이고 子氣는 生化之氣라고 표현하였다. 張隱庵은 下承之氣 中에서 특히 陰精에 대해서 “陰精者 天乙所生之精水也”라고 하여 좀더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無制之變인 경우는 “害則敗亂 生化大病”으로, 가령 水가 亢盛하여 土가 承하지 못하면 水가 泛濫하여 水克火하여 火가 滅絶하게 된다. 이처럼 土의 母氣(火)가 絶하게 되면 土가 더욱 水를 制하지 못하게 되어 水가 더욱 亢盛하게 되니 결국 五行의 賊害가 되어, 害하면 生化之氣(子氣)나 承制之氣(母氣)가 모두 敗亂되어 “生化大病”하게 된다. 따라서 “如水亢而無土

以承之 則水濫火滅 而土之母氣絶矣 無土以制水 則水愈亢矣 是以亢則爲五行之賊害 害則生化 承制之氣 皆爲敗亂 而生化大病矣”⁶⁴⁾라고 하였다.

“外列盛衰”에 대해서는 馬蒔와 입장을 같이 하여 金西銘의 말을 인용하여 “主歲之氣太過 則已亢而侮所不勝 如不及 則爲所勝之氣亢而侮之”⁶⁵⁾라고 하여, 太過와 不及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니, 太過일 때에는 本氣가 亢하여 所不勝까지 侮하고 不及할 때에는 所勝之氣가 와서 亢하여 侮한다고 하였다.

한편 李梴은 《醫學入門·運氣篇》에서 ‘亢’字에 대해서 “過極而不退也 當退不退 始則災害及物 終則災害及己”⁶⁶⁾라 하였고, ‘承’字에 대해서 “承 猶隨也 以下奉上 有防之之義”⁶⁷⁾라 하여 王安道の 說을 따랐다. 그러나 王安道를 위시한 다른 이들은 “制生則化”를 마땅히 모두 “制則生化”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으나, 李梴은 “制生則化”로 그대로 보고 ‘生化’를 “生者自無而有 化者自有而無”⁶⁸⁾라고 하여 王安道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制生則化者 言有所制 則六氣不至於亢而爲平 平則萬物生而變化無窮矣”⁶⁹⁾라고 하였다. 李梴은 ‘制生則化’를 萬物이 生하여 變化가 無窮한 것으로 보았으니, 王安道가 ‘變化의 用’이라고만 한 것을 부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王安道 虞搏 張景岳과 마찬가지로 ‘有所制’와 ‘無所制’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制生則化’와 ‘害則敗亂’을 설명하였다. 먼저 制하는 바가 있으면 亢하는데 이르지 않고 萬物이 生化하니 “制生則化者 言有所制 則六氣不至於亢而爲平 平則萬物生而變化無窮矣”⁷⁰⁾라 하였고,

61)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6

62)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2

63)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2

64)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2

65) 馬蒔 張隱庵, 上揭書, p. 482

66)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年, p. 245-246

67) 李梴, 上揭書, p. 245-246

68) 李梴, 上揭書, p. 245-246

69) 李梴, 上揭書, p. 245-246

다음으로 制하는 바가 없으면 亢害하여 敗亂하고 生化하는 萬物이 大病하게 되니 “害而無所制則敗壞乖亂之政行 爲災爲變 生化幾乎息 而爲萬物之大病 大病 卽災變也 萬物皆病 天地其能位乎”⁷¹⁾라고 하였다. 또한 ‘外列盛衰’에 대해서는 “外列盛衰者 六氣分布主治 迭爲盛衰”라고 하여 王安道の 說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는 앞의 여러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亢害承制論’에 대해 구체적으로 ‘天時’와 ‘人身’을 예로 들었다. 먼저 ‘天時’로 말하면 “以天時言之 春時冬令不退 卽水亢極而害所承之木”⁷²⁾이라 하였으니, 所承者는 ‘所生者’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所生者가 다시 生하는 것이 亢甚한 氣를 制함으로써, 역시 制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所不勝者가 되어서 “然火爲木之子 由是乘土而制水 則木得火生之令 而敷榮列水於外”⁷³⁾라고 하였으니 이는 우단의 ‘子來救母’說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충한 것이다. 다음으로 ‘人身’으로 비유하면 “以人身言之 心火亢甚 口乾髮燥 身熱 則脾土失養 肺金受害”⁷⁴⁾라고 하여, 心火가 亢甚하면 脾土가 失養하고 肺金이 害를 입게 되므로 “由是水乘而起 以復金母之驪 而制平心火 汗出髮潤 口津身涼而平矣”⁷⁵⁾라고 하여, 水가 乘하여 金母의 元수를 갈게 되니 이 역시 處搏의 ‘子來救母’의 說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런 ‘亢害承制’가 일어나지 않으면 “苟腎水愈微而不能上制 心火愈盛而不能下退 則神去氣孤 而災害不可解矣”⁷⁶⁾하게 되어 災害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李梴의 人身의 비유는 病證

까지 결합함으로써 매우 구체적이다.

《東醫寶鑑·天地運氣篇》에서는 ‘六氣承制’⁷⁷⁾라는 제목으로 《醫經溯回集》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王安道の 學說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70) 李梴, 上揭書, p. 245-246

71) 李梴, 上揭書, p. 245-246

72) 李梴, 上揭書, p. 245-246

73) 李梴, 上揭書, p. 245-246

74) 李梴, 上揭書, p. 245-246

75) 李梴, 上揭書, p. 245-246

76) 李梴, 上揭書, p. 245-246

7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年, p. 334.

III. 結論

《內經》의 '亢害承制論'은 본래 자연계의 상대적 평형을 유지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歷代 醫家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繼承 發明되어 이를 인체에 적용하여 生理 病理 診斷 治療의 여러 방면을 설명하는 중요한 醫學理論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亢害承制論'이 상대평형을 유지하는 법칙이라는 점은 대체로 見解가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1. '亢害承制論'의 發明 運用하는 과정에 있어서, 王冰은 《內經》의 '亢害承制論'에 대해 自然 現象으로 "兼其下"하는 의미를 발명하였고, 劉河間은 王冰의 注釋을 기초로 하여 '兼化說'을 제시하여 인체의 病理變化의 論證과 病候疑似的 眞假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張子和는 '承制'를 달리 분석하여 自然現象을 설명하였고, 王安道는 病理變化, 病候의 眞假分析에 대해 發明하고 五臟의 辨證, 湯液 鍼石 導引의 治療方法에까지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虞搏은 《難經》의 '元氣說'과 結合하여 亢害承制의 規條를 '子來救母'로 설명하였고, 張景岳은 《周易》에 근거하여 '承制'를 自然現象뿐만 아니라 人事에까지 확대 해석하였으며, 馬蒔는 먼저 이전의 '亢害承制論'과 '兼化說'이 '太過'인 경우만을 설명한 것임을 지적하고 '不及'인 경우를 언급하여 診斷上의 虛實 구분과 治療法까지 제시하였고, 平氣年과 太過·不及年으로 나누어 '亢害承制論'을 '兼化' '勝復'과 연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李梴은 虞搏이 發明한 '子來救母說'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病證으로 예시하였으며, 許浚은 대체로 王冰 王安道 등의 '亢害承制論'을 계승하였다.
2. '下承之氣'에 대해서 대체로 王冰 劉河間 王安道 虞搏 張景岳 馬蒔 등은 亢盛한 本氣의 所不勝者로 보았으나, 張子和 李梴은 亢盛한 本氣의 所生者로 보고, 張隱庵은 下承之氣가 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本氣의 所不勝者로 承制之氣(母氣)이며 다른 하나는 所不勝者가 生하는 것으로 生化之氣(子氣)라고 구분하였다.
3. '亢害'로 인하여 害를 입는 氣에 대해서, 王冰 劉河間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王安道에 이르러 '害物'이라고 표현하여 萬物이 害를 입는 것으로 보았고, 張子和 李梴은 所承者인 本氣의 所生者, 虞搏 張景岳은 本氣의 所勝者가 害를 입는다고 하여 六氣 자체로 보았고, 馬蒔는 '兼化' '勝復'의 '災害眚傷'으로, 張隱庵은 '五行之賊害'로 보았다.
4. '亢害承制'의 구체적인 規條에 대해서, 王冰 劉河間 馬蒔는 一氣가 亢하면 所不勝者인 下承

之氣가 制한다고 하였고, 張子和는 一氣가 充하면 所生者인 所承之氣가 害를 입음으로 인하여 所承者의 所勝者가 旺하게 되어 制한다고 하였다. 또한 王安道 虞搏 張景岳 張隱庵 李梴은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으로 나누어 '制則生化'와 '害則敗亂'을 설명하였으며, 王安道 虞搏은 '有制之常'을 '不充而防之'와 '既充而克勝之'의 두 가지로 경우로 더욱 세분하였으니, 本氣의 所不勝者가 承하되 不充하는 경우는 所承者가 나타나지 않으니 '不充而防之'이고, 充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니 '既充而克勝之'라고 하였으며, 張隱庵은 '制則生化'하는 有制之常의 경우는 承制之氣(母氣)와 生化之氣(子氣)가 下承하여 母氣가 制하면 子氣가 그 本位之氣를 生化하고, '害則敗亂'하는 無制之變의 경우는 一氣가 充하여 承制之氣가 承하지 못하면 本氣가 充盛하여 所勝之氣가 滅絶하게 되니 이는 承制之氣의 母氣이므로 承制之氣가 더욱 弱하여 制하지 못하여 결국 生化之氣(子氣)나 承制之氣(母氣)가 모두 敗亂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李梴은 張子和의 說에 따라 所承者는 '所生者'로서 充甚하면 所生者(母)가 害를 입는다고 하였지만, 所生者(母)의 所生者(子)가 充甚한 氣의 所不勝者(子)가 되므로 '子來救母'함으로써 充甚한 本氣를 制한다고 하였다.

5. '承制'의 구체적인 규칙은 歷代醫家들이 한결같이 <六微旨大論>의 "相火之下 水氣承之 水位之下 土氣承之 土位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에 따라서 五行相克의 법칙으로 해석하였고, 이를 寒熱 燥濕 風火의 六氣의 대립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특히 張隱庵은 "陰精者 天乙所生之精水也"라고 하여 명확히 '陰精'이 五行屬性 중에 水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6. '外列盛衰'에 대해서 王冰 劉河間 張子和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王安道에 이르러서야 有制之常에서 六氣가 分布 主治하는 것이 번갈아 盛衰함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으니 李梴은 이를 그대로 따랐으며, 虞搏은 이를 보충하여 所承者는 衰하고 所充者는 極盛하여 承制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보았으며, 張景岳은 마땅히 盛할 것은 盛하고 衰할 것은 衰하여 그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馬蒔는 "制則生化"를 '胞胎說'과 연관하여 '生(微)과 '化(著)의 순환개념으로 파악하고 承者(生者)는 "自外列盛"하고 極者(化者)는 "自外列衰"한다고 보았다.
7. "害則敗亂"에 대해서도 王冰 劉河間 張子和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王安道에 이르러서야 無制之變에서 "敗壞乖亂"이 行하여진다고 하였으니 李梴은 이를 그대로 따랐으며, 虞搏은 이를 보충하여 所承者는 더욱 衰함이甚하고 所充者는 세력이 縱橫하여 "生化大病"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張景岳 馬蒔는 原文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여 별다른 發明이 없었다.

8. 劉河間은 ‘亢害承制’를 病理現象으로 해석하여 亢害하는 本氣는 本質이며 下承之氣는 兼化로서 假象(標象)이고, 本質과 標象의 陰陽屬性이 相反하므로 診斷에 있어서 眞假를 구분해야 하며, 治療에 있어서 그 亢盛한 本氣를 瀉하여 本質을 다스려야 하지 假象(標象)에 미혹되어 下承之氣인 兼化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馬蒔는 劉河間이 發明한 ‘兼化說’은 太過인 경우만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不及할 때의 兼化는 本氣의 不足으로 인하여 下承之氣가 勝復한 것이므로, 治療에 있어서 本氣를 瀉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9. 馬蒔는 ‘亢害承制’를 ‘六氣勝復’과 歲氣의 平 및 太過·不及과 결합하여 설명하였으니, 平氣年의 ‘正化之常’과 太過·不及年의 ‘兼化勝復之變’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平氣年에는 ‘當其位者’가 承하여 正化之常이 되지만, 太過·不及年에는 ‘非其位者’가 承하여 兼化 勝復의 變이 된다. 平氣年에는 正化之常인 경우로 ‘當其位者’가 承하여 순서가 점진적이어서 四時의 정상적인 流行이 되고, 太過·不及年에는 ‘兼化勝復之變’으로 ‘非其位者’가 承하여 四時의 기운이 躡等하고 그 本氣를 變化하여 且夕으로 暴化하게 된다. 따라서 ‘亢害承制’에는 太過的 兼化·勝復 뿐만 아니라 不及의 兼化·勝復도 있게 되니, 〈五常政大論〉에서 木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太過的 兼化는 “發生之紀”의 類이고, 不及의 兼化는 “委和之紀”의 類이며, 太過的 勝復은 “不務其德 則收氣復”의 類이고, 不及의 勝復은 “蕭颯肅殺 則炎赫沸騰”의 類이다. 그러나 ‘兼化勝復之變’에도 ‘半變者’와 ‘全變者’가 있으니, 半變하는 경우는 本氣가 半衰하고 下承者가 半盛하여 ‘非其位’의 ‘兼化’가 되니 가령 〈六元正紀大論〉의 “木發毀折” 등이고, 全變하는 경우가 있으니 本氣가 全衰하고 下承之氣가 全盛하여 ‘非其位’의 ‘勝復’이 되니 가령 〈六元正紀大論〉의 “厥陰所至爲飄怒大涼者” 등이다.

이상의 研究過程에서 ‘亢害承制論’과 六氣의 ‘勝復’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때에 兼化가 일어나고 어느 때에 勝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느 때 半變하는 兼化가 일어나고 어느 때 全變하는 勝復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參考文獻

1. 馬蒔 張隱庵, 張馬合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2. 方約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서울, 一中社, 1984.
3. 葉川 等 主編,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4. 王安道, 東垣十種醫書·醫經溯洄集, 서울, 大星文化社, 1983.
5.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6. 李樾,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7. 李聰甫 等,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8. 張景岳,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0.
9. 張子和, 子和醫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